

24년 9월 목회일정

8일(주일)	성찬가족심방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김태영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성경으로 영화읽기)
2-3일	교회교육엑스포(총회교육원추진·포도원교회당)
10-13일	고신총회(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일(월)	노회SFC지도위원회(엘림교회당)
20일(금)	임원회 및 공천부모임(샘터교회당)
17일(화)	세속명절(한가위)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3. 신앙고백반교육 / 오늘은 쉽니다.
4. 성찬가족심방 /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3주-세속명절)
성찬1조-고충석가정 2조-김용대가정 3조-김경이가정
5. 목회자휴양주일 / 오늘은 양주동 목사의 휴양주일입니다.
6. 담임목사동정 / 1) 교회교육엑스포 : 2-3일 포도원교회당
2) SFC지도위원회 : 2일(월) 11시 엘림교회당
3) 국내전도부 : 5일(목) 11시 동산교회당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격주)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9월	10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이경준	김낙형
안 내	김유니	최예지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9.01.(제28-35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애 3:22-23(교송)
인도자 :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회 중 :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 5장(3)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주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제 4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22편(1-2)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창1:26-28 베후1:3-11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가454장
설교 ↓ 설교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5장(1a-b)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37장(3a-4b)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교회소식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개 회			아침기도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23:1-2(교송)	월~금 6시(교회밴드)		
	인도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스라 묵상		
	회 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느도다			인도 : 최성림 목사		
	* 축 복 의 인 사 ↓		벧후1:2(인도자)	수요기도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수요일 20시(예배당)		
	* 경 배 찬 송 ↑		시편50편(1)	[말씀·고백·삶]		
	신앙고백			인도 : 최성림 목사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동부(목, 10:30)		
	* 감 사 찬 송 ↑		찬송23장(7-8)	* 울산(화, 19:30)		
	말씀봉사			인도 : 양주동 목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김해(수, 19시)		
	성 경 봉 독 ↓		왕상21:7-16, 엡4:25	* 특별(시간지역협의)		
	교 리 문 답 교 독 ↓		소교리76-78문답	이야기성경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9-10편(3-5)	구	63. 다윗왕과 밋세바	
	설 교 ↓		설교자		64. 압살롬 왕자	
	제 구 계명			신	40.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주간성경읽기	
	자비사역			주일	왕하13-14	고전15:1-28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62편(1-5)	월	온 1-4	고전15:29-58	
폐 회			화	나 1-3	고전 16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수	왕하15,호1-3	고후 1	
			목	호 4-7	고후 2	
			금	호8-10	고후 3	
			토	호11-14	고후 4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1. 주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에 속한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들되게
2.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신앙의 덕목이 계속 공급되어지게
3. 주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맺게
파서교회(강인종목사)
1. 목사가 맡겨진 직임들(말씀,성례,성경공부인도..)을 감당하여 교회를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세우도록
2.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누리며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1. 개혁정론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도록
2.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언론이 되도록
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도록 개혁신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직분자들과 봉사를 위하여
1.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생활 속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2. 직분자들이 직분 맡기신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주님의 양떼들을 보살피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3. 직분자들의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工夫)하라>

공부(工夫)라는 글자의 한 자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의 ‘공(工)’은 ‘장인 공’이고, ‘부(夫)’는 ‘시아비 부, 일꾼 부’였습니다. 곧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말은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에게 공부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그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십니다(호6:3).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6:4-9)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신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소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장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工夫)’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기 위해 밤낮없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장인이 되어야 ‘공부(工夫)’한 목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을 바르게 알아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돌아봐줘야 ‘공부한 장로’요, ‘집사로서 장인(匠人)’된 성도’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야 참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한 부모’이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드름을 바르게 연구하여 가르쳐 줄 때’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신 예수님(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위해 ‘공부한 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여, 삼위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제대로 전하는데 ‘장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첨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알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되어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신의 이익과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이나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이웃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면 이 계명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거짓말은 모든 언약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증자를 반드시 죽여서 공동체 안에 악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만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 수 없을 것입니다.(신19:16-20)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허가 거짓을 말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일뿐 아니라 온 인생이 최악에 휩싸이고 했습니다(약3:5-10)

3) 물론 모든 거짓말이 범죄함을 받아야하는 죄인지는 히브리산파의 거짓말(출 2장)과 라합의 거짓말(수 2장)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수9장)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보았고 그 본향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 거짓말이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신앙고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참된 열심이 거짓말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범죄함을 받지 않는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하는 위협이나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투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길로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 9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

성경은 모든 말에 대하여 “거짓증언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 계명은 1)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금합니다.(소교리78문답) i) **중상모략**(출23:1-2)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남의 일을 부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로 당하는 상처가 겹으로 맞는 것보다 더 큼니다. 허가 입힌 상처는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는 비방 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를 해치고, 비방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과 원한을 일으켜서 또 그를 해칩니다.(15:1-5) ii) **말의 강조점을 바꾸는 것도** 금합니다. 눅 18장의 바리새인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리의 잘못을 강조하여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려합니다. iii) 상대방의 말 중에 **의도하지 않은 것을 추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금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마치 정확하게 아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 붙여 참된 것을 말하라’(엡4:25-소교리77문답) 2)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i) 이를 위해 이웃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어떤 것이 강조되어야 할 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i)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iii) **이웃의 명예와 명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숨김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거짓말보다 더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과 진리이시며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9월 1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454장
성경봉독	벧후1:3-11, 창1:26-28
설 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이 이

주제 :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믿음의 덕목들에서 자라가야 한다”

베드로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복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 교회 안에 성도의 책임있는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1.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Divine power)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도는 이를 더욱 확정하기 위하여 덧붙이기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생명**’입니다.(요1:1,5) 이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휘하는 삶을 말합니다.(약1:27,시52:9)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신성한 의 성품(the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참여한다’(koinonia)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첫 사람 아담에게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위임하신 것처럼(창1:26-2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동산 안으로, 동역자로서 그 나라를 섬기며 다스리는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속성, 곧 영광과 덕을, 경건의 능력과 영생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섞여질 모든 정욕적이고 패역한 삶을 떠나 오직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뢰하는 자라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시고, 그 영광과 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와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의 섞어질 것들을 취하는 자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써는 자는 주의 성품을, 주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2.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보존되는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지위는 믿음의 덕목들을 공급함으로 보존되어집니다.(5-7) 처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정욕을 위하여 사단의 꾀에 빠져 세상의 섞어질 것을 구하다가 그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가지신 성품, 곧 덕목을 공급하여 줌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하시는 덕목들 : 1) 덕-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그 약속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2) 지식-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3) 절제-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4) 인내-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5) 경건-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6) 형제우애-성도상호간의 교제 7) 사랑-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버리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하라'는 명령은 이런 덕목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곧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점점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정욕을 인한 세상의 섞어질 것을 피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런 모든 믿음의 덕목들을 공급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흡족한 사람, 곧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게으른, 구원의 덕목들을 공급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실상은 맹인이요, 멀리보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목이 공급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주의 신기한 능력, 곧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백성이 받을 신기한 능력을 잊어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믿음의 선물로 이 일곱 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열매맺어가야 합니다. 매일, 매주일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주께서 덧입혀주신 경건과 생명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덕목들을 공급하여 주의 장성한 성품에까지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9월 1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586장
성경봉독	왕상21:7-16, 엡4:25
설 교	제 구 계명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연약공동체를 허무는 거짓증언을 엄격히 금하신다"

교회들이 다른 계명보다 이 아홉번째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9계명 역시 다른 모든 계명들과 동일하게 가볍게 취급되어질 수 없습니다..

1. 9계명의 적용대상

다른 계명과는 달리 9계명과 10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라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말'을 첨가한 것은 이 계명의 한계를 다른 계명들보다 명확하게 지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 계명이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관계되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형제, 곧 '연약공동체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형제"라고 번역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엡4:25) 우리는 한 지체이기에 서로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기 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거짓증거가 한 몸된 지체를 파괴합니까? 그것은 서로 믿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거짓을 믿고 한편은 참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증언이 참된 것으로 채택되어질 때 온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한 말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된 행동에 속아 연약을 맺었지만, 자신들을 속였다고 이미 맺은 연약에 대하여 성실히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연약이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이 거짓된 것이 아님을 연약의 이행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의 입술의 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온 삶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언제나 모든 이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입니다.

2 9번째 계명의 내용

이 계명은 단순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 거짓 증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법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의 판결에서 증인은 중요합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다면 사건은 그 진상이 왜곡되어버립니다.(왕상21:10,13) 아합의 때에 나발의 의로운 피가 흐른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두 불량자의 거짓 증언 때문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직결